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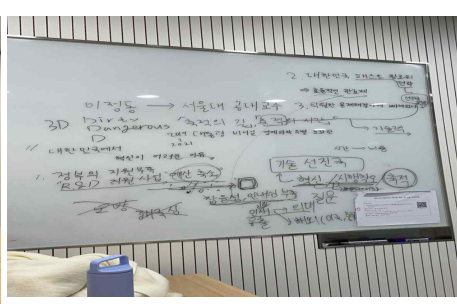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어벤처스

	일시	12 월 19 일 17 : 00 ~ 19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수연(2191118)	○ / X	
	이예은(2131005)	○ / X	
	장하은(2131123)	○ / X	
	성명(학번)	○ / X	
	성명(학번)	○ / X	
진도	도서명: 최초의 질문	진도페이지: p. 5 ~ p. 254	
1주차	토론 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좌측부터 장하은, 이예은, 배수연]</p> <p>1주차 토론 주제: 대한민국에서 혁신이 어려운 이유</p> <p>배수연 -> 정부의 지원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은 재정적 측면이 심각하다. 올해 R&D 예산을 16%를 깎는 기함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정부의 지원 부족이 인재 유출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유능한 기술, 연구자들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중국이나 미국같은 해외로 떠난다. 기술 연구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만한 재목, 인재들은 전부 의대로 가는 씩씩한 현실은, 이런 정부의 탓이 크다.</p> <p>이예은 -> 대한민국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인해 자리 잡은 기업의 관료제 문화. 지금의 변화무쌍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더 이상 모방은 필요치 않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모방을 통한 추격자 전략이 통하던 시대였다. 그러한 전략을 중시했던 과거의 기업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효율이었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의 형태는 관료제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 그때의 관료제가 우리의 혁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관료제는 조직원 간, 수평적인 토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위계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은 이러한 토론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관리나 지금의 상황을 고려한 관료제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p> <p>장하은-> 탁월한 문제해결자 관습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탁월한 문제해결자이다. 우리나라에서 12년동안 정규과정을 밟았다면 정답이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은 답이 없는 것을 고민한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다시 토론할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답이 없는 문제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근본적인 교육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p>	

	일시	12 월 26 일 12 : 00 ~ 14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수연(2191118)	○ / X
		이예은(2131005)	○ / X
		장하은(2131123)	○ / X
		성명(학번)	○ / X
		성명(학번)	○ / X
	진도	도서명: 최초의 질문	진도페이지: p. 5 ~ p. 254.
2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528 607 1453 1021"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83 1039 1198 1072">[좌측부터 배수연, 장하은, 이예은]</p> <p data-bbox="491 1122 1485 1368">2주차 토론주제 : 일본의 갈라파고스 제도(갈라파고스 증후군)의 한계와 대응방안 주제 선정이유 :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일본과 같이,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도는 추세에 접어들었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2016년 정점에 달했다. 일본의 저성장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처하고자 선정. 갈라파고스 증후군 : 폐쇄된 생태계에서, 외부교류 없이 진화의 방향이 내향적으로 변화하는 것. 종신고용/연공서열과 같은 일본식 경영의 특징이 이를 촉발시킴.</p> <p data-bbox="491 1424 1485 1536">이예은-> 갈라파고스 제도는 일본의 내수시장 의존도를 심화시키며, 혁신을 만드는 최초의 질문을 받아들이고 키워나가는 개방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p> <p data-bbox="491 1547 1406 1581">장하은-> 일본의 갈라파고스 제도는 경제 성장 하에서만, 효과를 나타낸다.</p> <p data-bbox="491 1592 1485 1794">배수연-> 일본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연구개발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은 인지적 다양성이 필수적인데, 이는 수평적이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조직문화에서 잘 발현되기 때문이다.</p> <p data-bbox="491 1805 1485 1962">이예은-> 현재 산업 패러다임은 일본의 장인정신이 빛을 발했던 통합형에서 현재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 조합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에서만 통용되는 표준에 고집하지 않고, 적극적 해외진출과 외부교류를 확대 해야만 한다.</p> <p data-bbox="491 1973 1485 2085">장하은-> 일본을 비롯하여, 비슷한 양상을 띄는 한국 모두, 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빠른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제품분야를 개척해나가며, 의사결정을 해외법인에 권한 위임을 하는 등 본국 중심주의를 탈피해야 한다.</p>	

	일시	1 월 2 일 17 : 00 ~ 19 : 00 장소명 상상베이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수연(2191118)	○ / X
		이예은(2131005)	○ / X
		장하은(2131123)	○ / X
		성명(학번)	○ / X
		성명(학번)	○ / X
	진도	도서명: 최초의 질문	진도페이지: p. 5 ~ p. 254.
3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07 1455 1010"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80 1032 1200 1066">[좌측부터 배수연, 장하은, 이예은]</p> <p data-bbox="491 1115 1318 1149">3주차 토론주제 : 슈퍼터식 기업가 정신 기반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p> <p data-bbox="491 1160 1490 1279">주제 선정이유 : 도전적인 최초의 질문을 가진 기업가가 기술혁신을 가져오며, 이는 '창조적 파괴'까지도 일으키게 된다. 창조적 파괴가 많이 일어나는 정책이나 환경이 자리를 잡아야 우리나라도 혁신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p> <p data-bbox="491 1290 1490 1361">따라서 이러한 체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슈퍼터식 기업가 정신기반 성장 정책에 대해 토론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주제로 선정하였다.</p> <p data-bbox="491 1373 1490 1444">- 슈퍼터식 기업가 정신 기반 성장 정책 : 민간 부문 기업가들이 스스로 도전적인 최초의 질문을 던지고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p> <p data-bbox="491 1456 1490 1574">이예은-> 20세기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도전 정신과 더불어 21세기 창업가는 사회적 책임도 요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후와 환경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기업은 이익감소의 위험에 있어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p> <p data-bbox="491 1585 1490 1657">배수연-> 기후와 환경과 더불어 현시대 상황을 반영해 창업가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p> <p data-bbox="491 1668 1490 1787">장하은-> 사회적 약자(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복지를 신경 써야 한다. 기업은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복지나 고령화에 대한 책임은 강제적이 아니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p> <p data-bbox="491 1798 1490 1870">배수연-> 민간기업의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서 정부는 R&D 예산을 늘려 실패와 다양성을 용인하는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p> <p data-bbox="491 1881 1490 1953">장하은-> 민간기업이 모든 걸 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부는 한계 탈피를 위해 공공의 기술(예. 신재생에너지)을 연구하고 개방하여 그들을 이끌어주어야 한다.</p> <p data-bbox="491 1964 1490 2083">이예은-> 정부는 직무 발견 제도(연구, 개발한 것을 적극 수용하여 보수를 지급해 주어 의욕을 고취시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탈서울화를 통해 인프라와 일자리를 주변으로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한다.</p>	

	일시	1월 6일 13 : 00 ~ 14 : 00 장소명 :한성대 메타버스 도서관(게더타운)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배수연(2191118)	○ / X
		이예은(2131005)	○ / X
		장하은(2131123)	○ / X
		성명(학번)	○ / X
		성명(학번)	○ / X
	진도	도서명: 최초의 질문	진도페이지: p.5 ~ p. 254
4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07 1455 1019"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80 1039 1200 1072">[좌측부터 배수연, 장하은, 이예은]</p> <p data-bbox="491 1122 1027 1155">4주차 토론주제: 최초의 질문이 필요한 이유</p> <p data-bbox="491 1167 1490 1323">주제 선정 이유: 최초의 질문이란 기존 분야에서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규범을 제시하는 질문임. 최초의 질문은 우리나라가 기술 선진국이 되는데 필수적. 이 책의 제목이 최초의 질문인 만큼, 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주제</p> <p data-bbox="491 1335 1490 1536">이예은 -> 최초의 질문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최초의 질문은 의미있는 축적을 위한 질문이다. 이러한 축적이 쌓이고 쌓여 우리나라의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어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나면, 기존에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모방정책을 시행하던 때보다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산업으로도 눈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p> <p data-bbox="491 1547 1490 1839">장하은 -> 최초의 질문은 기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 최초의 질문이 필요하며, 특히 문화적 분야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예를 들어 k-pop을 생각해보면, 초반에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우리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갖게 되었고 전세계에서 독보적인 분야로 성장하였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의 k-pop을 선망하고 모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초의 질문을 통해 기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지식을 축적하여 전체적으로는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p> <p data-bbox="491 1850 1490 2096">배수연 -> 한국은 이제 각 개인의 연간 소득이 3만 달러를 넘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로 들어섰지만 경제 성장률은 연간 3%를 웃돌며 저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의 돌파구는 기술적 발전이다. 기술적 발전은 최초의 질문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최초의 질문을 통해 다양한 기술의 개념을 다시 설계하며 우리가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얻게 된다, 이는 곧 우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배수연 (2191118)	<p>이번 독서클럽을 진행하며 토론을 통해 사고의 깊이가 더욱 깊어짐을 느꼈다. 혼자서 책을 읽었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토론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특히 하나의 주제를 토론 주제로 선정했어도,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 그와 연관된 다양한 하위 주제의 이야기로 토론이 흘러간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서도 나의 생각을 강화하거나 다른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원래 주제로 돌아와 더욱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어 내 주장을 설파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p> <p>또한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과 하니까 토론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나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었다. 그동안 토론을 하면 경직된 분위기에서 하던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없었다. 토론을 하며 즐겁고 재밌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나 스스로도 놀랐다.</p> <p>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토론을 즐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론에서 중요한 건 편안한 분위기와 자유로운 주제 선정이라는 것도 깨닫고 이번 독서클럽을 마친다.</p>
	2	이예은 (2131005)	<p>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다짐한 후 시작한 첫 번째 활동이 독서클럽이다. 혼자라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쉽지 않았겠지만, ‘책’이라는 목표 하나로 뭉쳐 공통의 목표를 바라보는 학우들과 함께 하니 즐겁고 수월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또한 책을 읽어도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딱히 없어서, 이번 독서클럽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내 또래 친구들과 사회 / 경영 / 환경에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구나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p> <p>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나의 생각의 가치를 뽐어나가고 싶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물론, 학우들과 함께 하기에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그래도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여 누군가에게 푹부러지게 말해야했기 때문이다.</p> <p>나에게 이번 동계방학 독서클럽은 2024년 한 해를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독서클럽 활동이 진행되면 매번 참여할 것이다.</p>
	3	장하은 (2131123)	<p>이번 겨울방학에 참가한 독서클럽은 나에게 의미가 크다. 독서라는 활동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나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지루한 활동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독서클럽을 하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나의 책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꽤나 즐겁고 더 깊이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홀로 책을 읽으면 다 읽고 나서는 머리 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기분이 들었는데, 토론을 하니 책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어 서로 서로 같이 성장해갈 수 있었다.</p> <p>평소 나의 생각을 잘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서 나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었고, 내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식도 알게 되었다.</p> <p>꼭 이러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독서클럽을 꾸려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